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롬 5:6~11

구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다

구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은 하늘의 구원이며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8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며 영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베푸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드신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심각해지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읽을 때는 그냥 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글이 살아 움직여서 자기의 심령을 치는 것입니다. 비수가 꽃히듯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영혼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3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영접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좇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었습니다.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본능대로 살았었고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빛을 다 탕감해 주고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 빛을 다 탕감해 주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빛 보증을 서고 집 팔고 하다가 아파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20년 후에나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선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보면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어야 할 순간이 오면 죽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어쩌면 몇 천만원, 몇 억 정도는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범위 안에서, 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자신이 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않습니다. 그저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을 가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밑에 가서 돕고 종살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치 않은 막 되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지하철 폭발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을 지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패륜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생, 교수가 몇 푼의 돈을 위하여 부모를 살해하고 불태웠던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당한 당사자가 우리 교회입니다. 허수정 자매 사건입니다. 기독교 연극을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양재 사거리에서 택시를 탔다가 온보현에게 살해를 당한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된 이후 불쌍하니까 구명하자는 운동이 일어나 사인을 부탁받았을 때 망설이다가 그래도 사람이 불쌍하니까 사인이나 한 번 해주자하고 사인을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약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천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20년이 아니라 2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 졌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것에 대해 조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입니다. 피 흘렸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피 흘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 보다 더 선명하게 구원을 설명해주는 말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입니다.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식으로 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의 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는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중요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A형 피에 B형을 잘못 수혈해서 의료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주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들이 의료계와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바로 그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 양과 소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사약이 우리 몸 속의 모든 병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을 쫓을 때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 귀신이 데굴데굴 구릅니다. 성령의 불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벌벌 떨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묶는 힘이 그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로 죄를 적시면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TV에서 한번만 뿌리면 어떤 것도 다 닦아진다는 세제 광고를 보았습니다. 화장실, 카펫에도 뿌리라고 해서 저도 사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나 잘 닦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 뿌려지면 깨끗하게 그 죄가 닦아집니다. 이것이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꺼림직하고 용서를 받지 못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결벽증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손을 닦았는데 돌아서면 안 닦은 것 같습니다. 또 가서 또 씻습니다. 한 시간 동안 손을 닦습니다. 어떤 부인들은 가스를 잠그고도 안 잠근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문을 잠그고도 방에 들어가면 안 잠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확인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용서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죄책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없어집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놀라운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잠시 설교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면 바로 설교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들 역시 보혈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입을 열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서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정결해 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에 흘린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날 씻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몸이 더러웠었는데 보혈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샤워하는 것 같이 됩니다. 이 보혈을 노래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를 묵상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190장을 한 번 불러 보십시오.

생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의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내 죄가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피곤하게 달리다가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 할 때 빠진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정결케하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면 마귀가 떠나가고 더러웠던 모든 부분이 청소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청소되면 기분이 좋듯이, 더러운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듯이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면 나는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혈로 씻기어 있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보혈로 닦여졌습니까? 찬송가 200장을 한 번 불러 봅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애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보혈을 선포하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입니다. 찬송가 19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가겠네

예수의 피를 볼 때에 귀신들은 울며 떠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보혈 없는 십자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으십시오. 그 피를 소유하십시오. 그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 보혈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변합니다. 이 보혈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구원에 대해 다른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은 변덕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기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에덴동산에서 축출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살인자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부림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빈대떡 뒤집듯이 사람을 싹 바꾸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표시입니다. 확증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깊은 안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안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겪는 일시적인 불안이나 암에 걸려 3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안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안심에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안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일들이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로 인해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떨어져도 붙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화해하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저 히죽히죽 웃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저 좋으니까 그럴습니다. 뭐가 얻어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런 안심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과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